선운사, 고창 지역문화 진흥 이끌다

9월 21~22일 경내 일원서
'제16회 선운문화제' 봉행
수륙무차평등대재 등 진행
11월 30일까지 야간 개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16회 선운문화제의 마지막 날인 9월 22일 진행된 산사음악회의 모습.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가을을 맞아 9월 21~22일 양일간 경내에서 '제16회 선운문화제'를 열고 수륙무차평등대재와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선운문화제는 선운사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지역문화의 중심으로서 사찰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 창조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원로 법현 스님, 종회의원 태효 스님 등 선운사 본말사 스님들과 정찬원 선운사 총신도회장, 심덕섭 고창군수, 김관영 전북지사, 서거석 전북교육감, 윤준병 국회의원, 정청래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수륙무차평등대재는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봉행됐다. 첫날인 21일에는 시련, 대령, 사자단 의식, 오로단, 중단의식이 진행됐으며 이튿날인 22일에는 상단권공의식과 관욕의식, 하단권공의식과 봉송의 순으로 이어졌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법요식에서 "선운사는 2021년에 550여 년의 전통을 이은 수륙무차평등대재를 복원하고 해마다 열리는 선운문화제에서 설행하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가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선운사와 선운문화제에 방문해 지역사회 발전과 전통문화 가치 증진, 한국불교 도약의 장 마련의 기회를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축사에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선운문화제를 통해 대중들이 종교를 초월한 지혜의 삶을 찾고 함께 세계 일화 세상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축사를 전했다. 김 도지사는 "선운사는 선운사복지재단을 통해 따듯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다"며 "선운문화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찾아온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에서 선운사는 동국대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수디프타 스님 등 4명의 외국인스님들에게 선운사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운문화제의 마지막 날인 9월 22일 진행된 산사음악회는 선운사보은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막을 열었다. 1부는 상월비보이단 '이에이트 크루', 상월청년합창단, 조계종 연예인전법단 가수 목비, 국악가수 최예림과 '이에이트 크루'의 콜라보 공연들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봉은국악협주단과 국악인 박애리 등 국악 공연과 동국대 한국음악과 학생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더불어 제21회 선운산 꽃무릇 창작시 공모전 시상식이 열려 일반부 금상 서은옥씨등 일반부와 중고등부 입상자들이 수상했다.

한편, 선운사는 많은 지역민들이 선운사의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30일까지 밤 9시까지 야간 산문을 개방하고 있다.

진호 스님, 1100여 장병 불자로 이끌다

9월 21일 호국연무사서 법회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논산 호국연무사에서 1100여 명 육군 장병을 부처님 제자로 이끌었다.

진호 스님은 9월 2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를 방문해 육군 장병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청성과 청법가, 청사와 개도, 법문, 참회와 연비의식, 계첩 수여와 후원금 전달,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법석에 오른 진호 스님은 "여러분께 수계를 하는 것은 부처님 가피로 안전하고 올바른 장병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오늘 수계 받은 장병 여러분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병영생활을 마치고 제대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팔에 연비를 받은 장병들은 오계를 봉독한 뒤, 수계첩을 받고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났다. 진호 스님은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훈련장병들의 병영생활을 지원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원융종 명진 스님을 비롯해 진도 약사사 주지 체효 스님 등과 원융종 신도가 동참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재)일붕선교종, 종도 하계연수교육

9월 24~25일 교원연수원서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 스님)이 9월 24~25일 양일간 충남 아산 도고 교원연수원에서 '2024년 종도 하계연수교육'을 열고 종단 발전을 논의했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종정 대륜 스님, 원로의원 경원 스님, 승원 스님, 총무원장 혜일 스님, 종회의장 도정 스님, 호계원장 동청 스님, 교육원장 지언 스님, 문화원장 제법 스님, 감사원장 법광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종정 대륜 스님은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 자리에 모인 종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간략하게 법문했다. 이어 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우리 종단은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가르침을 이어 대중포교에 나서는 한편, 불사 원만 성취와 법사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함께 절차탁마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담양 용흥사 불교대학 첫 발 내딛다

9월 22일, 1기 입학식 봉행



담양 불교를 이끌어갈 제1기 용흥사 불교대학이 힘찬 첫걸음 내딛었다.

담양 천년고찰 용흥사(주지 덕유 스님)는 9월 22일 경내 대웅전에서 용흥사 불교대학 제1기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용흥사 불교대학은 담양불교를 이끌어갈 불교 인재양성을 목표로 창립했다.

입학식에는 총 31명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학장인 용흥사 주지 덕유 스님과 강사로 참여하는 연화어린이집 원장 형진 스님, 지우 스님, 덕안 스님, 선문 스님 등이 동참했다.

용흥사 불교대학은 1년 과정으로, 지난 7월 2일 조계종 교육원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신입생 모집을 모집해 이날 31명의 제1기 신입생이 탄생했다. 교과과정은 1학기 기초과정으로 △불교입문(강사 형진 스님) △부처님의 생애(강사 덕유 스님) △불교기초교리(강사 덕안 스님) △불교의 수행법(강사 선문 스님) △불교의 의례와 문화(강사 지우 스님)이 진행되며, 2학기 심화과정에서는 초기경전, 반야심경과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용흥사 주지 덕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5년 전 아무것도 없던 용흥사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원력으로 오늘날 모습을 갖추었다. 불교대학도 시작은 미미하지만 수많은 노력과 인연공덕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 열심히 공부에 정진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덕사, 경허 스님 175주년 탄신다례

9월 26일 경내 대웅전서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이고 선맥(禪脈)의 토대를 다진 경허 스님의 탄생 다례재가 봉행됐다.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경내 대웅전에서 경허 스님 175주년 탄생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탄신다례는 21위의 역대대사 다례와 함께 설행했다.

다례재에는 덕숭총림 방장 우송 달하 대종사,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학술원 원장 정묵 스님, 종회의원 정범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김종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유훈과 탄신을 기렸다.

설정 스님은 "경허 선사는 '평상심이 곧 깨달음'임을 중생에게 전하고 자비를 베풀어 부처님의 정법을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신 선지식이었다. 그분을 닮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허 스님은 1849년 전주에서 태어나 의왕 청계사에서 출가한 뒤 끊어진 한국불교의 선풍을 다시 일으키고 만공 스님, 혜월 스님, 수월 스님 등 수많은 제자를 배출한 뒤 1912년 입적했다.

한편, 경허록만공법어편찬위원회(상임위원장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이하 경편위)는 2022년 10월부터 진행해 온 경허록 및 만공법어 연구·출판 사업이 올해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결과물로 경허록과 만공법어 정본, 두 선사 관련 자료집 등 총 4권의 책이 발간된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화엄사, 도광·도천 대종사 행장기 봉헌

9월 25일 각황전 · 부도전서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9월 25일 경내 각황전과 부도전에서 '리산당 도광 대종사 원적 40주기 및 도천당 도천 대종사 원적 13주기'를 맞아 두 스님의 행장기를 봉헌하고 합동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은 "바쁜 일정에도 두 스님 추모다례재에 참여해 주신 대중스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화엄 문도들은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화합하며 열심히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봉헌된 도광·도천 대종사 행장기는 원로스님들의 고증과 허권 화엄선재불교연구소장 등의 노력으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